

디에스중공업, 국내 최대 크레인 4기 美 수출

〈영암 크레인 제작업체〉

컨테이너 상·하역용... 기술력 인정받아 산은서 100억 지원

국내·외 항만 하역설비 제작 선두주자 발돋움 기대

영암의 크레인 제작업체인 디에스중공업(대표 김성길)이 최근 대기업도 선뜻 제작이 힘든 컨테이너 상·하역용 크레인 4기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쾌거를 올렸다. 디에스중공업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형 크레인을 제작, 수출함으로써 국내 외 항만 하역설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태세다.

24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디에스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핀란드 대형 설비업체인 코네크레인(KONECRANES)으로부터 대기업의 전용물류 여객기인 컨테이너 하역용 크레인 4기를 수주받은 뒤 최근 완제품 제작을 마치고 바지선을 이용, 미국 휴스턴항으로 출항시켰다.

디에스중공업이 제작한 크레인은 1기당 높이 85m에 무게만 1600t에 이른다. 국내에서 제작된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광양항이나 부산항도 이 정도의 하역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 컨테이너 크레인은 컨테이너선이 부두에 정박하면 컨테이너를 부두로 옮겨놓는데 이용된다. 그동안 대형 크레인은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이 제작을 독점해 왔으나 디에스중공업 같은 중소기업이 수주, 제작한 사례는 처음이다.

크레인 제작 전문 중소기업인 만큼, 필요한 인원만 있는데다 크레인의 크기를 키워가면서 경험과 기술력이 축적돼 제작이 가능했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엔 일본 오사카항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하역용 크레인 2기를 추가 수주하기도 했다.

디에스중공업은 제작 과정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수주 계약 후 첫 단계인 지급보증 10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30억원의 투자를 추가로 얻어냈다.

디에스중공업은 지난 1994년 광주출신의 김성길 대표가 처가에서 650만원을 빌려 창업한 대성산업이 모태다. 당시 김 대표는 홀로 크레인 제작에 들어갔으나 자본금이 없어 부지가 공장을 세웠고, 쫓겨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후 조금씩 회사를 성장시킨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8월 디에스중공업을 설립한 뒤 매년 200%에 이르는 매출성장을 기록하며 대불산단을 대표하는 업체로 자리매김했



영암의 크레인 제작업체인 디에스중공업이 최근 미국 수출을 위해 제작한 컨테이너선 하역용 크레인 4기가 목포신외항에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이 크레인은 높이 85m, 무게 1600t 규모로 국내에서 제작된 크레인 중 가장 크다. /나명주기자 mina@

다. 특히 1600t 규모의 콜리아웃 크레인 제작과 함께 다른 업체가 눈여겨 보지 않았던 대형블록에 집중, 1500~1700t짜리 블록을 생산하면서 현대상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국내 대형조선사가 주요 고객이 됐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턴 오버 크레인'도 이 회사의 기술력을 뒷받침한다. 이 제품은 블록 철관 용접시 블록을 들어올

린 뒤 공중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김 대표는 "앞으로 더욱 많은 투자자를 확보해 향후 5년 이내 기업공개로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동남아 및 유럽시장의 항만 하역설비 수요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성장에 더욱 치중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76.12 (+7.73) 금리 (국고채 3년) 2.06%
- ▲ 코스닥 621.31 (+5.79) ▲ 환율 (USD) 1109.90원 (+1.20)

광주상의 차기 회장 다음달 20일 선출

내달 12일 의원 80명 선출 투표

광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이 다음달 20일 결정된다.

광주상의는 24일 "제2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의원 총회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30분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회장 후보자는 의원총회 4일 전인 16일까지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특별의원은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다음달 12일에는 회장 선출권을 행사할 의원 70명 및 특별의원 10명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가능하다.

현재 광주상의의 차기 회장 후보로는 박흥서 현 회장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등 2명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9년 보궐선거로 회장을 맡은 뒤 5년 넘게 광주상의를 이끌어온 박 회장은 본업인 럭키산업보다 광주상의 회장직에 공을 들여 광주상의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사업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 출생한 호반건설을 주력 공급량 전국 5위권의 대형 건설사로 성장시킨 김 회장이 광주상의 회장을 맡게 되면 지역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임동률기자exian@

광주·전남 무역수지 두달 연속 흑자

광주·전남이 두 달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흑자' 순항을 하고 있다.

24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15년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와 전남 무역수지가 각각 7억8000만달러, 1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은 수요 수입품목인 원유단가가 하락하며 수입액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1억7000만달러 흑자에 이어 두 번째 흑자를 내 만성적자에서 벗어났다.

광주의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3억달러, 수입은 38.0% 증가한 약 5억달러로 전년보다 12.2% 감소한 약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요증가로 전년 대비 22.0%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전제품도 13.8% 증가하며 수출을 이끌었으나 자동차, 기계류, 타이어는 감소했다.

전남지역의 수출은 전년 대비 10.9% 감소한 약 26억달러, 수입은 29.4% 감소한 24억달러로 전년 대비 134.5% 증가한 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철강제품, 선박이 증가한 반면 화장품, 석유제품, 기계류가 감소했다. 수입은 화장품이 증가했으나 원유, 석유제품, 철강 등이 감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휘발유값 이번주도 26원 인상

국제 유가(油價)가 상승세에 따라 정유사들이 휘발유 공급기준 가격을 지난 주 ㄹ 당 30원 올린 데 이어 이번 주에도 26원 인상에 주유소 휘발유값도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정유업체에 따르면 SK에너지는 휘발유 공급기준가를 지난주 대비 ㄹ 당 26원 오른 1천564원, 경유는 22원 인상한 1382원, 등유는 27원 오른 876원으로 책정했다.

GS칼텍스 역시 휘발유 공급기준가를 ㄹ 당 26원 올려 1557원, 경유는 24원 인상해 1384원, 등유는 27원 올려 879원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휘발유 평균값(1470.24원)이 전날보다 5원 올라 1500원대에 근접하고 있으며 1900원대 최대가 주유소도 다시 등장했다. 광주와 전남의 휘발유 평균값은 지난 8일부터 오르기 시작 24일 현재 ㄹ 당 각각 1466.08원과 1459.21원으로 2주전에 비해 60~70원의 오름세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00원대 고가 판매 주유소도 다시 등장, 완도 소안주유소와 소안대광주유소가 보통휘발유를 ㄹ 당 평균 1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어린이 미술작품 멋져요” 24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이 아카데미 겨울학기 어린이 회원들이 제작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백화점 9층에 마련된 전시회는 내달 14일까지 이어진다. <광주신세계 제공>

금호타이어 노조 ‘분신 부분파업’

노 “불법 도급화 철회해야”
사 “대화로 해결책 찾아야”

최장기 임금단체교섭 타결 1개월여 만에 금호타이어 노사가 또다시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 직무 도급화와 관련, 1노조 대의원 김모(45)씨가 분신하면서 노조가 도급화 철회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불법파업을 용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부는 지난 23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24일부터 사흘간 각 4시간의 부분파업을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근로자 분신은 회사 측의 불법 도급화 강행이 부른 결과로, 사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씨의 분신이 회사의 과도한 직무도급화 계획에 있다고 보고 사측의 책

임 인정과 사과, 48개 직무도급화 철회 및 비정규직 확대 금지, 현장 노동탄압 금지, 유가족에 대한 배상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노조가 소송 대신 일방적인 불법 파업 강행에 들어갔으며 “법률이 정한 교섭절차와 조정신청,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통한 정당한 쟁의권의 행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서는 회사와 유가족 간 원활한 소통과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된 대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며 “노조가 유가족의 빠른 안정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불법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6일 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분관동 옥상에서 분신해 숨졌으며, A4 1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제가 죽는다 해서 노동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금호타이어만은 바뀌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대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불백(6,000원)

6.25대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춤형 브랜드 손님을 꼭 잡아야 하는 번영을 얻고 있습니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지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리다매 전문생산업체
이앤지미화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